- 2019년 4월 민주주의 서울 -

<시민토론>의제선정 선정단 회의록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4. 24. (수) 14:00 ~ 16:30

□ 장　　소 : ㈜메트릭스코퍼레이션 사옥 1층 강의실 및 FGI실

□ 참석인원 : 20명

□ 시민토론 선정 대상 의제

○ 재건축, 재개발 지역 동물보호를 위한 공론장(실험형)

○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동물보호조치 정책 도입, 찬반 토론(찬반형)

Ⅱ 회 의 진 행

□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선정 대상 의제 논의

○ 길고양이 문제에 대한 관심, 인식 확인

○ 재개발, 재건축 지역 동물 보호 관련 논의

□ 시민토론 공론화 의제 선정

○ 도시 재생지역에서의 동물권 보호(실험형)

○ 재개발 지역에서의 동물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대책 마련(찬반형)

Ⅲ 회 의 결 과

〈회의 요약〉

○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작은 공론장(실험형)**

- 전문가들의 참여로 정책 실행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완성도 높은 매뉴얼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되어 보편성을 이끌어나가기 어려우며, 일반 시민의 참여 폭이 줄어들고 성과에 비해 예산의 수반이 높을 수 있음

○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동물보호조치 정책 도입(찬반형)**

➡ **시민토론 의제로 결정**

- 다양한 시민이 참여가 가능하여 표본수가 많아 신뢰도가 많아져 보편적 의견 제시가 가능할 수 있음. 반면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만 참여하여 의견이 편향될 가능성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이 희석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최종 논의 후 실험형은 4명이 찬반형은16명 선호하여 찬반형으로 결정**

□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작은 공론장(실험형)

○ J: 아무리 좋은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시행착오를 줄이는 차원에서 실험을 통해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험형의 장점이 있지만, 특정 지역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될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만 그 문제를 인지 할 수 있는 문제점과 단점도 발생.

○ R: 문제를 알리는 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 것이며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반영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실험형은 소요 시간이 짧아 효율적으로 판단.

○ A: 실험형으로 진행하면,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실험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고,이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 G: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여 다른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기 어려움.

○ F: 1차적으로 한정된 지역만 진행해서 오히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결과를 찬반형으로 공론화하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됨.

○ P: 상황이 딱 떨어지거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으면서 정책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험 환경이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하면 일반화의 오류도 줄일 수 있다고 봄.

○ D: 어떤 정책이든 실험이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실험형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사항들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실험형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봄.

○ P: 고양이들은 동물이다 보니 사람이 예측한 대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습성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전문가와 희망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하지만 관련 주민, 보호 단체 등이 모여 방법을 생각하고 실험을 하는 만큼, 사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고려하지 않은 고양이들만 위한 시야가 좁은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H: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음. 제한된 장소 및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면 자원 봉사자, 선정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I: 실험형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해서 나온 결과를 활용하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만큼 신빙성도 올라가 대중을 설득하는데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됨.

○ K: 찬반토론의 경우 여론 조작이 될 여지가 있어 위험이 따르지만, 실험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특성을 더 알고 관심 분야가 있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이나 전문성은 실험형이 더 있다고 봄.

○ Q: 정책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실험을 해보고 좋은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T: 실험을 진행하면 비용이 투여되지 않고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있다면 이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찬반토론에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찬성/반대를 하면 더 위험할 것 같음.

○ E: 우리나라는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동물에 크게 관심 없어 공론장이 과연 이뤄질까 하는 의문이 들고, 만약 이뤄진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실험할 정도로 참여할 사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험형은 실패할 것이라고 봄.

□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동물보호조치 정책 도입(찬반형)

○ R: 찬반토론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험형으로 진행을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 G: 찬반형 같이 의견이 대규모로 오고가는 장이 마련되면 보다 보편적인 정책 도입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R: 실험형은 공론화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반면, 찬반토론을 통해 정책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면 공론화도 가능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

○ N: 정책을 끄집어내는 경우 동물보호단체 등이 리스크 감소 등 정책을 수립하는데 장점이 있는 것을 보임.

○ K: 전국적으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시간이나 방법 면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함.

○ D: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만큼 여러 의견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실험형은 특정 한 지역만 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의미나 영향력이 작을 것으로 보임.

○ I: 실험형은 소규모 지역에서만 실험하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여론의 왜곡이 일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함. 반면, 찬반 투표는 서울시 전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표본수가 더 많아져, 그 결과는 그만큼 신뢰도가 높을 것 같음.

○ H: 실험형의 경우 반려견 행동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가 대거 투입 될 수도 있어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찬반투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함.

○ J: 여론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 예를 들어 QR코드 같은 경우 연령층이 높으면 접근하기 어렵고, 길고양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연령대가 젊은 층이 많아 실제 여론과 다르게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함

○ R: 실험형은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지만 찬반 토론형을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실제로 나타날 장단점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I: 찬반투표는 다수결인데, 다수결 원칙에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다수가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E: 동물을 보호한다고 해도 어떠한 정책이 없어서, 법적인 보호가 없어서 그 아이들이 학대를 당해도 구해 줄수 없는 현실임. 그렇기 때문에 실험보다 자치법, 동물법 등이 먼저 시행되고, 큰 틀에서 방법론을 생각해야 한다고 봄.

○ L: 실험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동물 보호를 위한 법 또는 조례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봄. 도한, 결국 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공론화를 진행해도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서 끝이 안 날 수 있음.

○ E: 크게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봄. (찬반형)은 상위 개념이고 (실험형)은 그 다음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찬반형)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실험형)이 따라야 하는 방법임.

○ T: 찬반형이 명확성을 띄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노출시키기에는 실험형 보다 낫다고 생각이 듬.